

예수·마리아·요셉의  
성가정 축일

기도서 233 면(C해)

제1독서: 집 회 3, 3-7. 14-17a

제2독서: 골 로 3, 12-21

복 음: 루 가 2, 41-52

# 숨 정 이

천주교 전주교구 홍보국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  
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루가 2, 49).

□ 강 련



## 행복한 가정

서 석 구 신부

기쁜 성탄을 맞이하고 우리는 오늘 행복의 보금자리인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을 목상해 보자. 사람이 태어남에 그 부모의 품속이 있듯이 인간이 성장하는 데에는 가정이란 것이 있다. 가정은 그 사회의 가장 작은 공동체이며 작은 교회인 것이다. 그러니 그 가정이 건실하면 그 사회가 건실하고, 그 가정이 불행하면 그 사회는 불행한 것이다.

요사이 가정부재란 말이 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자녀들이 각자이런 말이다. 사회구조가 우리의 생활 방식을 그런 쪽으로 몰고 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가 직장의 바쁨도 부부 맞벌이도 부의 축적도 결국은 행복을 얻기 위한 것일 것이다. 그렇다고 보면 그것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가정에 평화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마치 목적을 두고 수단에만 매여 살다가 진짜를 잃고 마는 격이다. 이렇기 때문에 가정의 평화는 아무리 강조하여도 부족함이 없다 하겠다. 그래서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에서는 86년을 성체와 가정의 해로 정하고 성체로서 사랑의 일치를 이루고 이것을 가정에서부터 성장해 가도록 바라고 있다.

오늘 주일은 85년을 결산하는 마지막 주일이며 다음 주일은 86년 새해를 맞는다. 그동안 가정에 소홀히 했던 것을 살펴보고 오늘 주일부터 나자렛 가난한 성가정을 배우자. 그 가정은 조촐하고 소박하였다. 경건하고 호근한 사랑으로 가득찼다. 그리고 하느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가정의 중심이 되었다. 우리의 가정도 행복한 가정, 축복받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모신 소성당으로 만들자. 우리집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찬송하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와 행복한 웃음소리만 들리게 하자.

동서고금을 통해서 유명한 사람이 있기까지는 그 뒤에 훌륭한 부모님들이 있었다. 그 부모에 그 자녀가 있다. 나자렛에 한 가난한 예수 마리아 요셉 가정을 목상하면서 부부들이 결혼할 때 서약했던 결혼서약을 음미해 본다. 「나는 당신을 남편(아내)으로 맞아들여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성하거나 병들거나 일생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신의를 지키기로 약속합니다.」 아멘.

(고창 천주교회)



## 한 해를 보내며

한 해가 저물고 있다. 숨통이 조금은 터지겠지 하는 한 가닥의 기미는 허망하게 무너지고, 금년에도 역시 갖가지 사건들이 우리를 우울하게 했다. 이번이라고까지 표현된 총선거의 결과를 놓고 여당과 야당은 민심의 소재를 각각 다르게 해석했다. (어쩌면 문제들의 발단이 여기서부터 비롯되는지도 모르겠다) 양심과 법의 마지막 보루인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논의가 국회에서 다루어지기도 했다. 대학생들의 잦은 데모와 구속도 그 도를 더했다. 예산 시비는 끝내 정치의 파국을 가져오기도 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될 것인가! 참으로 한심하다.

지난 18일, 김수환 추기경은 성탄절 메시지에서 이 시대를 한 마디로 “우리는 지금 정치 부재, 질리 부재, 정의 부재, 인간 부재의 어둠속에 갇혀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 한 종교 지도자가 뜨거운 심장으로 말하는 예언자의 소리이다. 그런데 이를 받아들이는 언론의 표현이 재미있다. 18일자 동아일보는 “民主化만이 국난극복 길”이라고 제목을 붙이는데 하면, 19일자 조선일보는 “지금 필요한건 혁명아닌 화해”라고 제목을 달았다. 얼핏 보면 관점이 조금은 다르게 느껴지기도 한다. 민주사회에서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자기에게 유리하게만 받아들이는 어리석음은 문제다. 여기서부터 필요없는 싸움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사실 그 메시지의 핵심은 22일자 가톨릭 신문의 제목만 읽어보아도 뚜렷하게 알 수 있다. -「참된 民主化만이 살길/정치 지도자들 回心 촉구/자신부터 제물되는 결단율/국난극복의 지름길은 화합.

이제 이 시대의 어수선함을 불사르자. 부디 새해에는 제말만 앞세우지 말고, 상대방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자. 그래서 화합과 민주화를 이루자.

## 숨 정 이 산 채



# 1985년 全州교구 5대 뉴스

## I. 해외선교사 파견

외국 선교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성장하여 온 우리 교구가 해외 선교사를 파견했다는 것은 자치교구설정 50주년을 맞는 우리에게 더욱 의미를 새롭게 한다.

## II. 사회 복지회관 신설

선교 200주년을 맞는 우리나라가 이웃 선교에서 이웃 사랑으로 발돋움하는 이즈음, 우리 교구가 사회복지 사무부가 신설되어 새로운 회관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시대적인 사명이라 생각되어 마음이 뿌듯하다.

## III. 청소년 신앙대회

금년은 세계 청소년의 해였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 주었다. "그리스도는 청소년의 빛"이라고..... "교회는 젊은이들의 것"이라고.....

지난 10월 전주 학생회관에서 2000여 청소년들이 한데 어울려 교회 안에서 그들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찾았다.

## IV. 가톨릭 농민대회

가진 것 없고 배움이 없는 자들은 언제나 권력자들로 부터 소외를 당하여 왔다. 교회는 바로 이들에게 격려와 용기를 주어야 할 사명을 지니고 있다.

지난 여름 우리 가톨릭 농민회원들은 예언자적인 사명을 갖고 농민의 권익을 위해 시위했고, 지난 10월 주교님과 사제단과 가톨릭 농민회원들이 한 자리에서 농민대회를 가졌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었다.

## V. 자치교구 설정 50주년 선포식

언제나 감추어진 것은 밝혀지기 마련이다. 우리는 50주년 행사를 통하여 밝혀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다. 이 교장에서 제일 먼저 순교자가 피를 흘렸다는 사실, 7인의 성인 행적, 이루갈다 동정 부부 등등,

지난 11월 30일 천호 성인묘역에서 가졌던 50주년 선포식은 큰 의의가 있었다. 폭설중에 700여 신자들의 모임이 조출하기는 했지만 신앙의 고향을 찾아 온 재경 전주 출신 신자들이 동참하였다는 데서 더욱 의미가 컸다.

장하다 순교자, 주님의 용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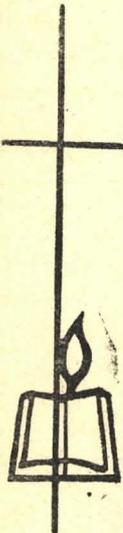
### ☐성서교실 ㊸

##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루가 2:49)

놀란 어머니를 보고 예수는 놀란다. 예수는 양친이 왜 자기를 찾았는가를 이해하지 못하였다. 자식이 아버지 집에 있다고 하는 것, 당연한 것이다. 만일 예수가 요셉의 집에 없다면, 하늘의 아버지 집,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아니냐고 예수는 말하고 있는 것이다. 어머니의 걱정에 비해서 예수는 너무나도 태연하였다. 이 대목은 예수의 「두 아버지」를 일러준다.

예수가 12살 먹도록까지 잠시도 떠나지 않았던 부모의 집을 이제 떠나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은 메시아 자각이라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단지 어린이 답게, 직작적으로 나오는 솔직한 행동이었다는 것,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다. 한편 이것이 예수 생애를 양분할 수 있는 대사건이었다는 것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된다. 그는 그 순간 육(肉)의 아버지 외에 진(眞)의 아버지를 발견했던 것이다. 지금까지 말로만 들었던 진(眞)의 아버지를 직접 눈으로 본채, 그는 체험을 했던 것이다. 지금까지 요셉을 통해서만이 접했던, 하늘에 있는 진(眞)의 아버지의 품에 그는 직접 안기는 것이었다.

우리에게는 두 아버지가 계신다. 우리는 하늘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육(肉)의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우리는 「지상(地上)의 자(者)」를 「아버지」라 해선 안된다. 우리들의 아버지는 「천상(天上)의 아버지 한 분」 뿐이다. 나의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자기 부모를 미워해야 한다고 예수는 말하고 있다. 이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사랑은 모순인 것이다. 그러나 「친부모를 모르는 험로」를 돌파하는 사람은 「최대의 모순의 참혹」 밑에서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에 잠긴 것을 알게 된다. 부모를 등지면서 하느님께 복종하는 길, 이것이 진짜 부모께 복종하는 길이다.



### 현대병 치료에 신약 영 지

※ 영지의 효능 : 암, 당뇨, 급만성간염, 동맥경화, 고혈압, 관절염, 신경통, 위장병, 신경쇠약, 중풍, 어혈, 만성기관지염, 노이로제, 불면증, 알레르기 등 ※ 직접 재배 판매합니다 이리시 월성동(해바라기농장 앞)

### 성심영지농장

☎ 3-9513

김중규(프란치스코) · 배희숙(아네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칼라TV · VTR · 전자레인지 외 가전제품 일체



### 금성복전주대리점

팩토링 분할 판매

(교우분은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안춘기(베네티도) 김금수(세시리아)

※ 금성부녀사원모집중 전북대학교 입구

☎ 3-2419 74-2419

# 교 구 소 식

1. 신년 교례회 : 1월 3일 오전 11시, 장소-가톨릭 센터  
참석대상-성직자·수도자·평신도 대표·교구내 각 단위기관 대표
2. 전주교구(중·고지도자 2대 정기총회) : 1월 5일 오전 10시~오후 5시, 가톨릭센터  
대상-중·고지도자, 회비-2천원
3. 성모 푸른군대 특별피정 : 1월 2일 오전 10시~오후 4시, 장소-전주 덕진천주교회  
초대강사-김보록(살레시오회) 신부님·조성호 선생님  
회비-1천원, 준비-도시락·피정 및 미사도구  
대상-일반 남·녀 모든 교우 ※ 김보록 신부님의 특별 성체강복 있음
4. M·E 소개 모임 : 1월 4일 오후 3시30분, 장소-센타 소회의실  
M·E 11차 재모임 : 1월 4일 오후 4시, 장소-센타 강당
5. 자연법적 가족계획 사용자를 위한 교육  
대상-미혼 남녀·피임을 원하거나 임신을 원하는 여성(부부 동반 환영)  
때-1월 7일 오전 10시~12시(매월 둘째 화요일마다 있음)  
곳-가톨릭 센터 2층 행복한 가정운동 상담실(☎ 3-5098)
6. 전화번호 변경  
삼례천주교회 : 사제관 73-8469, 사무실 9-2018, 수녀원 9-3196  
원평천주교회 : 사제관·사무실·수녀원 43-0880, 신협 43-0881  
수류천주교회 : 사제관·사무실·수녀원 43-0581
7. 군중후원회 : 1월 모임은 정기총회 관계로 생략함
8. 남성 23차 푸르실료 : 1월 3일~6일(개회식-3일 오후 5시)  
여성 20차 푸르실료 : 1월 17일~20일
- ※ 조의 : 나춘성 신부님 부친 나요한께서 20일 새벽 1시30분 선종하셨습니다.  
23일 오전 11시 팔마성당에서 영결식을 가졌었습니다

※ 가정기도 시편 : 19:1~14 독서 : I고린토 10:31~33 복음 : 루가2,8~20

## ❁ 잠 간!

### 고산의 성탄 이야기

기쁜 성탄절을 마무리하면서 불우한 이웃을 위해 각 본당별로 좋은 일 많이 했다는 흐릿한 소식을-그중에 눈에 띄게 호뭇했던 일은 고산 본당의 이야기 한토막이었다.

가정 형편상 학업을 중단하고 공장으로 가야 하는 15세 어린 학생의 딱한 사정에 마음이 아프던 신부님의 모습에 본당 몇몇 엄마들이 돕겠다고 나선 후 지금까지 1년간 240만원이라는 큰 돈을 장학금으로 마련, 13명의 불우한 학생들이 공부를 계속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가칭 "고산 가톨릭 장학회"가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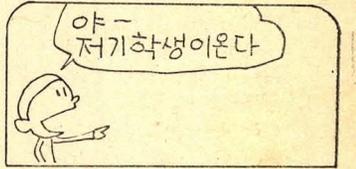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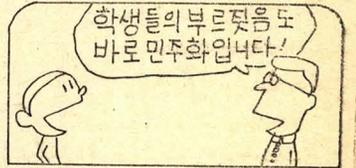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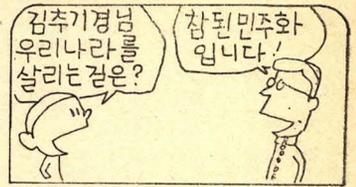
마굿간-말구유-가난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보다야 우린 사실 얼마나 호강스런 생활인가. 신분도 밝히지 않고 가난한 자기 살림에서 조금씩 모아 남모르게 불우한 이웃을 도와온 그 시골 엄마들의 따뜻한 마음이 있어, 울 성탄은 그렇게 훈훈했던 모양이다.

### 내년 판공행사 때엔.....?

추운 골방(?)에서 몇백명씩 성사를 주다보면 발이 저려오고 몸이 굶다가도 "저는 몇 년 냉담하다가 오늘 성사받습니다"하는 소리를 들으면 "이크, 큰 고기 걸렸구나" 하며 정신이 번쩍 들고 모든 피로가 싹 풀린다고... 모든 신부님의 말씀-그러나 정해진 날짜를 어기고 마지막 날에 몰려오는 심포들은 매년 판공때마다 격어야하는 고역이 아닐 수 없다. 금년 성탄 판공때도 예외는 없었다고- 지난 이야기지만 우리 좀 생각하자. 성사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 좀 여유있게 차분하게 제 날짜 제 시간을 이용했으면...

내년 봄 판공때나 기대해 볼까?

## 요십이 (647) 김병오



—성인병은 치료보다 예방—

## 영지! 영지! 영지!

◎ 2천년도 훨씬 전부터 선초라고 해서 만병에 사용되었다. 때로는 불로장수의 약이라는 전설까지 생긴 이상한 나무 새끼들.

—보건의신문 83년 2월10일자— 불로선초 「영지」의 베일을 벗긴다에서

### ◎ 영지의 효능

- \*암 \*당뇨 및 간염예방
- \*동맥경화·고혈압·중풍·어혈
- \*위와 장질환
- \*관절염 및 신경통
- \*기관지염 및 장기능강화
- \*기타 성인병과 노화방지

### ◎ 봉사하고 있습니다

- \*직접 재배하기 때문에 값도 싸고 양도 더 드립니다
- \*포장된 선물용도 있습니다

## 월성 영지능장

이리시 월성동  
(글라라 봉채 수녀원 앞)

☎4773 · ☎8953

강 영 순(제노페카)

## 현대 사진관

중앙성당 건너편  
코야백화점 앞

3-5289 (사진관)

4-9206 (미용학원)

김 낙 준(요 한)

김 금 순(테레사)

## 황수경 산부인과 의원

자궁암 검사 · 질 성형수술

여 의 사 황 수 경  
산부인과전문의

이 승 열 (멜리아)

☎ 2-7272

판통로 서울신탁은행 건너편 골목

제 1 지구 각 본당소식②

(노송동) 사제관 6-0969 주임신부 김 용 태
수·사 2-7032 보좌신부 김 의 철 재
아파트 75-6389 사목회장 이 흥 재

- 1. 평화의날 신년미사: 1월 1일 오전 10시30분
모두 미사에 참여하시고, 새해 축복이 받으세요
2. 축! 성탄영세자 133명: 모두 축하드립니다
3. 축! 가정주일: 오늘은 가정주일입니다
오늘의 미사는 가족과 함께 참여합니다
4. 레지오 연총친목회: 31일 저녁 7시부터
본당내의 모든 레지오 단원들(협조단원까지)은 빠짐
없이 참석하세요
5. 송년미사: 31일 밤11시, 한해의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우리 모두 미사에 참여하여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들의 소원을 기원합니다
6. 전자울개기금 완납합시다: 아직 못내신 분들은 신
입당시의 약속대로 31일까지 꼭 납부하세요
7. 예비자교리 임시휴강: 본당의 모든 예비자 교리반은
1월 둘째주부터 시작합니다
8. 감사: 성탄행사에 협조해주신 모든 분들께
9. 금주의 전례담당: 3조, 차주는 4조가 담당입니다
10. 아파트 성당 소식

송년미사: 30일 저녁 8시 미사후
송년회에 짝교우 초대합니다

성신강림반 예비자모집: 1월 8일까지
예비자 교리시간 안내: 장소-아파트성당
①부녀반교리-매주 수 오전 10시(이수녀님)
②직장인교리-매주 수 저녁 8시(보좌신부님)
③부활교리반-1월 8일부터 시작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626,460원 교무금: 6,129,800원
신축금: 424,000원

(복자) 사제관 75-0592 주임신부 권 영 균
사무실 2-5238 사목회장 김 성 원
수녀원 "

- 1. 첫철례 7: 1월 4일 저녁 7시
2. 사목회 임원: 회장-김성원, 부회장-양규철·김인
식, 총무-이상인, 감사-천진·박상기, 교문-조성
호·박홍기, 선교부장-정동민, 전례부장-유덕열,
재경부장-조영호, 교육·청소년부장-강기연, 홍보
부장-나병규, 사회복지부장-정성규, 애령부장-이
갑진, 여성부장-김인식, 구역부장-신영희
3. 부녀회: 1월 4일 오전 10시
4. 축! 영세: 75명,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하합니다.
교리지도에 수고하신 김수녀님께 감사드립니다
5. 성탄준비에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6. 85년 교무금 미수되신 분은 속히 완납바랍니다
86년 교무금 10% 인상: 십일조 정신으로 하느님께
감사의 뜻으로 신자의 의무를 다합니다
7. 금주 청소: 월-이땅의 빛pr. 토-황금궁전pr
차주 청소: 월-사도의 모후pr. 토-자비의 모후pr
8. 금주전례: 해설-정운주, 독서 ①이갑진 ②황마리안나
차주전례: 해설-황만금, 독서-①정동민 ②신재마

□ 지난주 봉헌금: 286,480원 교무금: 1,174,000원
해의사목헌금: 108,680원

(상관) 사제관 79 주임신부 김 영 신
사무실 사목회장 이 정 우

- 1. 교우 여러분 새해에는 하느님의 축복 많이 받으세요
2. 사목회의: 1월 4일 저녁미사 후
3. 구역장 회의: 1월 5일 공식미사 후
4. 교무금을 완납해 주세요

- 5. 공사기금 신입하신 분 납입해 주세요
□ 지난주 봉헌금: 128,370원 교무금: 60,000원

(서학동) 사제관 2-8307 주임신부 김 반 석
사무실 " 사목회장 김 낙 균
수녀원 2-2276

- 1. 축! 영세: 주님안에 새로 태어난 자녀들(94명)
축하합니다
2. 사목회: 1월 4일 저녁미사 후(7시30분)
3. 여자사무원 모집: 22세 이상 1명
여성졸업자, 부기·주산 자격소지자
※ 사무실에 이력서 제출 바람

4. 다음주 전례

미 사	해 설	1독서	2독서	기 도
첫 미 사	김은경	함문권	박경환	문 치 구
공식미사	김배근 고정수	강기호	박형식	윤 안 나
저녁미사	진경선	고육근	최창림	천사의 모후

□ 지난주 봉헌금: 343,481원 교무금: 904,000원

(전동) 사제관 6-6208 주임신부 김 치 삼
사무실 2-3222 보좌신부 김 기 곤
수녀원 2-8347 사목회장 김 병 오

- 1. 울트레아: 오늘 공식미사 후
2. 성화를 위한 특별 성령세미나: 1월 2일~3일
참가비-3천원
3. 송년미사: 31일 오후 11시30분
(1월 1일 아침미사 없음)
4. 사도회 월례회: 1월 12일
5. 유아세례: 1월 4일 11시
6. 다음주 봉헌담당: 김용욱 부부
7. 차주전례
아침미사: 해설-최종만, 독서-①김동연 ②최정석
공식미사: 해설-이주철, 독서-①신일균 ②장금배

□ 지난주 봉헌금: 842,990원 교무금: 1,097,500원

(호자동) 사제관 75-3841 주임신부 박 중 신
사무실 2-0915 사목회장 이 정 선
수녀원 2-4804

- 1. 축하합니다: 성탄 성인 영세자-113명
2. 신정미사: 1월 1일 아침 6시
3. 교육관 지하 소성당 미사: 모든 평일미사와
주일 새벽·저녁미사
4. 성모기사회: 1월 4일 오후 1시30분
5. 유아세례: 오늘 10시
6. 감사합니다: 사제관 응접실 방석 6개-김루시아
7. 건축헌금: 10만원-연초제조창 성화회
3만원-익명, 2만원-익명, 1만원-익명
8. 신자여러분! 1년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본당신부·사목회원 일동-

□ 지난주 봉헌금: 573,630원 교무금: 3,802,500원
건축헌금: 160,000원